

맑은 공기·건강 먹거리·죽제품... 다 주는 '치유의 숲'



국가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담양 대나무숲. 편안한 쉼터를 제공해 주고, 죽순과 죽제품 등 다양한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담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업유산 전남의 '오래된 미래'

5 담양 대나무숲

최근 대나무숲이 뜨고 있다. '출판사 옆 대나무숲' '신문사 옆 대나무숲' '시택 옆 대나무숲' 등 무수한 대나무숲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 이 대나무숲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나무가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 임금님의 이상한 귀를 보고, 대나무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고 외쳤던 것처럼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털어놓는 공간을 네티즌들은 '대나무숲'이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대나무숲은 무언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준다.

국내 최고 대숲으로 손꼽히는 담양 대나무숲을 국가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한다면 사실 조금은 생뚱맞은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인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린 대나무숲은 농업·농촌과 긴밀하게 호흡하고 있다.

한반도 대나무 26%가 담양에 자생

죽제품 年 53만점 생산·120만명 방문

죽초액 농법으로 국가농업유산 재도전

△대숲의 농업적 가치 충분=담양군은 가산리 회룡마을 일대 대나무숲의 국가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담양 일대에는 한반도 대나무의 25.5%가 자생하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나무숲은 7039ha이며, 이중 담양에만 1797ha의 대숲이 있다.

대나무는 죽순 등 다양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대바구니 등 죽제품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 담양군은 대나무를 이용한 농업과 농경생활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농업유산 등재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담양에서는 200여 가구가 한 해에 대소쿠리 등 죽제품 53만 점을 만들고 있고, 죽순은 300 농가에서 105t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관광자원으로 여겼던 대나무숲에서 다양한 농업 생산물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 대나무를 활용한 죽모차와 대잎차도 인기를 끌어, 연평균 20%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죽모차작목반이 생겨날 정도로 생산 농가가 늘고 있다.

하늘을 가린 대나무숲에는 유기물과 버섯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특히 땅대버섯은 대숲에서만 발견되는 희귀종이다. 담양 대숲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다양한 생태계가 보

존되고 있다.

△환경보호와 관광지로 각광=담양 대나무숲의 농업유산 등재 가능성은 환경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조사발표에 따르면 대나무 1ha에서 29.34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이는 소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보다 3.8배나 높은 수치다. 또 산소 배출량은 다른 수종에 비해 35%가 더 많다.

또 최근 입소문을 타고, 한 해 120만명의 관광객이 담양 대숲을 찾아 관광객 입장료 수입만도 20억원에 이른다.

담양군은 오는 2015년에는 관광객이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인근에 농촌체험형 민박 등을 조성하고 있다.

헬빙 열풍을 타고 죽순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죽순 판매가 늘어 조만간 연간 400t가량의 죽순을 생산하고, 향후 8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담양 대나무 일리는 엑스포도=죽향(竹香) 담양의 정체성을 알릴 대나무 엑스포가 2015년 열려, 대숲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다. 이 엑스포는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2015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담양읍 향교리 죽죽원 일원에서 치러진다.

담양군은 죽죽원, 종합체육관 일원 31만3000㎡ 부지에 145억원을 들여 전시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제교류전, 학술대회, 전시, 이벤트 등 행사를 통해 90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군의 목표다.

현재 조성 중인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개구리생태공원과 연계해 대나무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종으로 재인식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복안이다.

군은 준비작업을 맡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위원회 설립의 근거가 될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세계 대나무협회(WBO) 10차 총회 유치에 나서 대나무 엑스포 분위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 연말 국가농업유산 등재 시급=담양 대나무숲은 지난해 국가농업유산 등재에 실패했다. 농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이나 역사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해에도 담양군은 국가농업유산에 재도전한다.

현재 담양 대나무숲의 농업유산 등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시아 각국에 비슷한 대숲이 많다는 점이다. 대나무숲의 규모나 지명도 등만 놓고 볼 때 중국 등지에 비해 담양이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담양 대나무숲이 농업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양만의 특징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담양군은 대나무에서 나온 죽초액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법에 주목하고 있다. 죽초액을 제조제 대신 사용하는 친환경 농법을 통해 대나무숲과 농업, 농촌이 공생하는 독특한 구조를 홍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사도가시마가 따오기가 살 수 있는 논을 만들어낸 점을 들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성공했다, 대나무숲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구조를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것이다.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 고은 과장은 "대나무는 환경과 생명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죽제품 등에는 한국 농업의 특성이 담겨 있어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담양=정재근기자 jig@kwangju.co.kr

■ 담양 죽공예

부채·대자리 등 생산...낙죽·참빗장 '무형문화재'

대나무는 낙죽, 참빗, 부채 등 공예품으로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대나무는 농업과 공예를 아우르는 산업인 셈이다.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선정 과정에서 대나무를 이용한 공예품을 만들어 온 역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나무 공예품 속에는 한국 농업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담양에서는 현재 낙죽, 참빗, 부채, 석작, 샷작, 키, 고리작, 대자리, 효자손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낙죽장(제31호)은 중요무형문화재이며, 채상장(제52호), 참빗장(제15호), 죽림장(제23호) 등은 지방무형문화재로 선정돼 보존되고 있다.

이곳의 대나무 공예품 역사는 40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참빗을 만들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고, 지난 1922년에는 일본인들이 질 좋은 죽제품을 착취하기 위해 참빗조합인 '진소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다양한 죽제품과 함께 담양의 명물이었던 죽물시장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300년 이상의 전통이 있는 담양 죽물시장의 옛 이름은 '삿갓점머리'였다. 삿갓을 쓰고다니던 시절에 이곳이 특히 삿갓 유통의 중심지

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담양읍 향교리 관방전에서 만성교 사이 천변 부지에서 장이 섰다.

과거에는 담양 장날에는 각 마을에서 만들어진 소쿠리, 바구니, 갓, 키 등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행렬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70년대 후반 산업화 과정에 PVC산업이 발전하면서 죽물 공예품 시장에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더구나 최근 값싼 중국산 죽제품이 밀려 들면서 담양 죽제품은 명맥만 간신히 이어오고 있다.

담양 대나무 숲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죽제품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 대부분 죽제품이 농업과 농촌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자연친화적인 생활용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업 부산물로 생활의 일부를 채웠던 선조의 삶의 지혜를 잘 계승하는 것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가는 지름길인 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룸완비)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ggole Half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Half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Half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오시는 길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